

고려해운

해양대학교 장학기금 3억원 전달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와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이 지난 1월 6일 대학 본부 3층 회의실에서 '산학협정식 및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양 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문 해운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체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 기술자문, 연구지원 및 외부수탁을 포함한 공동연구 수행 △ 학술자료, 기술정보 등의 교류 △ 연구시설, 장비 및 공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날 협약과 더불어 고려해운 박정석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해양대 출신 인재들의 기여가 컸다”며 “우리나라 해운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세계 해운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전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글로벌비스

자동차 해운사업 확대

글로벌비스(대표 김정배)가 자동차 해운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비스는 대우버스와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28일 울산항에서 초도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양사간의 이번 계약은 글로벌비스가 대우버스의 모든 수출 물량을 해당 국가로 운송하는 포괄적 운송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글로벌비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연간 1,000대 규모의 대우버스 수출 물량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 운송하게 되며, 이번 계약에는 국내 생산분과 함께 대우버스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 수출되는 물량도 포함된다.

이로써 2010년 1월부터 현대·기아차의 해상 운송을 시작한 글로벌비스는 사업 진출 1년 만에 국내 완성차 메이커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앞선 지난 12일에는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 GM(옛 지엠대우)의 경차 900대를 운송하기도 했던 글로벌비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국내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통운

2011년 전략경영 워크숍 개최

“올해 경영방침인 글로벌 표준화(Global Standardization) 추진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기준과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원태 대한통운 사장은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 간 전 임원과 팀장, 지사장과 해외 법인장 등 임직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흥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1년

전략경영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우리의 강점인 자산과 조직력을 더욱 강화해 회사를 세계적인 자산형 물류기업으로 키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항만 인프라 개발, 하역 장비 추가 투입으로 항만하역 능력을 확충하고, 지난해 발주한 자항선에 이어 중량물 운송장비도 추가 도입해 입체적인 중량물 운송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설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사무소에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들에도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거점을 설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택배사업부문에서 개인 대 개인(C2C) 물량 점유율을 확대하고 대한통운만의 차별화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품질향상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끊임없이 매출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고, 스피디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특히 "단합된 조직력과 강화된 사업 역량을 통해 올해 경영목표인 대한통운, 한국복합물류, 아시아나공항개발 통합운영 3사 매출액 2조 3,500억 원과 영업이익 1,574억 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2010년 통합운영 3사 기준 매출은 2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X팬오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인수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올해 첫 선박으로 17만6천DWT급 초대형 벌크선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STX팬오션은 11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인

'STX 보나(BONA)' 호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STX 보나' 호는 길이283m, 폭45m, 깊이25m 규모의 초대형 벌크선으로 중국 뉴타입즈조선소에서 건조됐다.

STX팬오션은 이 선박을 현재 수행 중인 전용선 계약에 대체 투입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STX팬오션은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브라질 발레(Vale)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략화주와 20여건이 넘는 전용선계약을 확보하고 있다.

유연직STX팬오션 경영기획실장은 "현재 벌크시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STX팬오션은 회사가 보유한 탁월한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다수의 장기운송물량을 확보해 두었다"며 "올 한해도 신조선14척을 예정대로 인수하고 사선대 확충을 통한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STX팬오션은 벌크선52척, 탱커20척, 컨테이너8척, 자동차전용선3척, LNG전용선 및 헤비리프트 선박을 포함한 총85척의 사선대를 보유하게 됐다.

태영상선

중국 청도사무소 개소

태영상선(사장 박영안) 중국 청도사무소가 2011년 1월 1일부로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태영상선은 중국 청도에 사무소를 개설해 2011년 1월 1일부로 정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태영상선은 “중국 텐진사무소에 이어 청도 사무소를 추가 설립함에 따라 현지 영업력 증대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중국 청도사무소 (소장 : 박원만과장)

- TEL : 82 - 532 - 6889 - 9885 ~ 6

- FAX : 82 - 532 - 6889 - 9887

▷ 사무실 주소

- RM 21E-1, INTER ROYAL BUILDING NO. 15 DONGHAI WEST ROAD, QINGDAO, CHINA

SK해운

2011년 비전선포식 개최



SK해운(대표 황규호)은 지난 1월 3일 SK남산 빌딩 강당에서 황규호 사장 및 임원,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시무식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SK해운은 'Beyond Great Shipping Company'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Business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화 측면에서의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기업가치 20조원의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SK해운 황규호 사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여 Super Excellent 수준의 Shipping Company 를 만들기 위해 전력질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SK해운은 Vision 선포식에 앞서 임직원들은 새로운 Vision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동영상 시청했고, 선포식을 마친 후에는 전직원들을 Value Innovator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진해운

8,000TEU급 컨선 2척 동시명명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8,600TEU급 최신행 컨테이너선 2척을 아시아-미서안 항로에 투입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목포 현대 삼호 중공업에서 8,600TEU급 최신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우 부사장을 비롯해, 현대 삼호중공업의 오병욱 사장등 관련 임직원 약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날 행사의 스폰서로 2010년 한진해운 육/해상 최우수 직원 가족이 초청됐다.

‘한진 함부르크’ (Hanjin Hamburg)와 ‘한진 뉴욕’ (Hanjin New York)으로 명명된 이들 선박은 최신 시스템을 구비해 선속의 조정 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급 선박에 비해 연료소모량이 적은 최신 친환경 전자제어엔진을 탑재한 경제선박으로서, 한진해운이 발주한 8,600TEU급 (1TEU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 5척 중 2, 3번째로 인도받는 선박이다.

현대상선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개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은 지난 1월 31일 연지동 사옥에서 43명의 신입사원과 가족, 그리고 이석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석희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해운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국제화되어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선배 임직원들이 해운 것처럼 열정과 도전의식을 갖고 현대상선의 새로운 역사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신입사원 가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입사원들은 직접 준비한 꽃다발을 부모님께 전달하며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행사 후, 이석희 사장을 포함한 현대상선 경영진들은 신입사원 및 가족들과 저녁 만찬에 참석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신입사원들은 1월 3일부터 부산신항터미널 방문·방선 체험 등을 통한 해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주간 마복리 인재개발원에서 그룹의 新조직문화 ‘4T’를 체득하는 합숙과정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월 7일부터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창립 7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출범한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가 지난 1월 16일로 창립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BPA는 그동안 전 세계 PA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난해 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물동량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5위의 위상을 지켜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주요 항만들이 일제히 물동량 감소세를 보일 때에도 두 번째로 작은 감소폭(11%)을 기록했다.



BPA는 지난 7년간 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사업, 수역시설 관리와 해외 항만시설 투자, 유류체계기 개발 등 차근차근 영역을 넓히며 항만공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발판을 다져왔다.

BPA는 기념식을 개최하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 위상 수성 ▲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부산항 경쟁력 제고 ▲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 해외항만 사업 진출로 ‘글로벌 PA’ 성장 등을 꼽았다.

BPA는 이같은 주요 성과들을 토대로 내실을 다

지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해 앞으로 부산항이 세계일류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현재단

해양소년단연맹 운영지원금 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은 지난 1월 26일 청소년들에게 해양사상교취를 통한 진취적인 국가관과 올바른 민족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현재단의 설립자인故조수호 한진해운 회장(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9,10대 역임)은 총재 취임 이후 매년 꾸준히 사업비를 후원해 왔으며, 양현재단은 그 뜻을 이어 올해에도 2,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해양소년단은 1962년 대한소년단 산하단체로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로서 바다 알기, 바다의 중요성, 해양환경 보호, 해양문화 창달, 해양 유산의 계승 발전 등 청소년들과 함께 바다 사랑, 바다 지키기 등을 위해 국제청소년해양축제, 해양소년단 리갯타, 해양소년단 총재배 요트대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양현재단은故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설립 이후 부산대학교 물류혁신

네트워킹 연구원 설립 지원,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등 해운관련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상품화권자 대상 인증서 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공식상품화권자로 범양산업진흥(주), (주)성원종합기획, 애드윈, (주)밀레21, 한미타올(주)을 선정하고, 1월 5일 공식상품화권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업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로고와 마스크트(여니·수니)를 활용하여 봉제, 문구, 각종잡화, 완구, 소품, 가방, 민속공예품, 생활용품류 등 총 1백여개 공식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제행사 기념품은 단순한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조직위원회는 좀 더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과 활용도를 고려한 소장가치가 높은 기념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상품개발 디자인 유통능력을 중점 평가하여 공식상품화권자를 선정했으며, 국내 개최 대규모 이벤트 최초로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러닝로열티 방식을 도입했다.

박람회 공식기념품은 대형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서 판매 될 예정이며, 일반소비자들은 기념품 구매를 통해 미리 여수세계박람회를 느끼고 참여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제27대 위원장에 이종환씨 당선

지난 1월 24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



장 이중환)의 정기 전국대
의원대회가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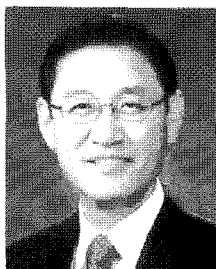
이날 정기 전국대의원대
회에서는 지난 한해의 노
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이중환 제 27대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제27대 위원장 선거에는 前현대상선(주)해
원연합노동조합 이중환 위원장이 단독출마했으
며 101명 제적대의원 중 참석대의원 97명, 총투
표자 96명 중 찬성 72표, 반대23표, 무효 1표, 기
권 1표로 당선됐다.

또한 이번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그간 정
치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선원들이 소중한 참
정권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선상부
재자투표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
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결
의문, 선원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결의문,
열악한 어선원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향
상에 관한 결의문, 연근해어선원 인력 개발 및 양
성을 위한 결의문, 선원법을 악용하는 항만에선
선사의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문, 부산·인천신
항만 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케이엘넷

정유섭 신임대표이사 취임



케이엘넷(사장 정유섭)은
지난 1월 27일 역삼동 사옥
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
운데 정유섭 대표이사 취
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유섭 대표이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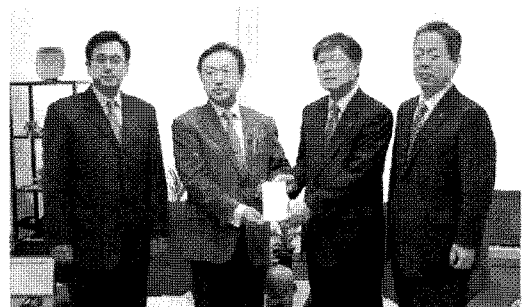
취임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활한 물류흐름과 물
류정보의 가시화, 보안 등을 위한 치열한 기술전
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물류정보화를
선도해 온 케이엘넷의 기술력과 가치를 더욱 강
화시켜 글로벌 물류표준을 리딩하는 기업으로 도
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라며 “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업
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분위기를 쇄신
하고,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고 단합하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
갈 것”이라며 전했다.

한편 정유섭 케이엘넷 신임대표이사는 행정고
시 22회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주미
대사관 해양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수산
정책과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등을 두루
거친 해양 및 해운물류 전문가로서 국립해양조사
원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 한국해운
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도선사협회

삼호해운 석선장 쾌유기원 성금 지급



28일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이 삼호해운
석해균 선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성금 1,000
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이날 송정규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급박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석 선장의 용단과 희생정신으로 삼호 주얼리호의 전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해양 동반자로서 전국의 230여 도선사들이 석선장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이렇게 십시일반하여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아제르바이잔 정부검사권 수임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1월 10일 아제르바이잔 해사당국과 아제르바이잔 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 대행검사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흡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된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번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으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됐다.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사 명예의전당 신년참배

지난 1월 3일 신년을 맞이하여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흥기)는 해기사명예의 전당(부산 태종대 영도등대 내)에서 신년참배와 현화를 하고 해운 선각자들의 숭고한 업을 되새겼다.

이날 해기사협회와 국토해양부는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해양한국의 위상제고와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해기사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세 분의 명예해기사를 헌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기사협회에 따르면 금년에도 명예로운 해기사 한분을 선정하여 5월 '바다의 주간'을 맞이하여 헌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문무선 이사장 취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원장 김종의) 제 8대 이사장에 문무선 이사가 1월 15일 취임한다.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문무선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46년여를 검정업계에 종사해왔으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감사와 이사를 역임 하는 등 검사원의 내부 사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해사위험물검사원은 문무선 이사장이 위험물 육해공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발전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위수여식 거행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 학내 대강당에서 해사대학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바다현장 낭독, 학사보고, 학위 및 상장수여, 해사대학장의 학위수여식사,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총 385명의 학사가 배출되었다.

지난 4년 동안 승선실습과정이 포함된 해사대학의 해기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해운 및 해사산업 발전과 해양관리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동량으로서 해군 소위 임관자 등을 제외한 90% 이상이 상선에 승선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

한국해양대의 해사대 학위수여식은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라는 병역특례 실시로 졸업 후 1개월간의 군사교육을 거친 뒤 승선하도록 병역법 관계법령이 개정된 까닭에 지난 2009년부터 타 단과대학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에 해운·항만 물류 노하우 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내륙국가 몽골에게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몽골해운산업발전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몽골에 전문가도 파견했다.

KMI에 따르면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계획부와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2명의 자문관(이장훈 자문위원, 박용안 연구위원)을 몽골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선진적 해운·항만·수산 발전 노하우를 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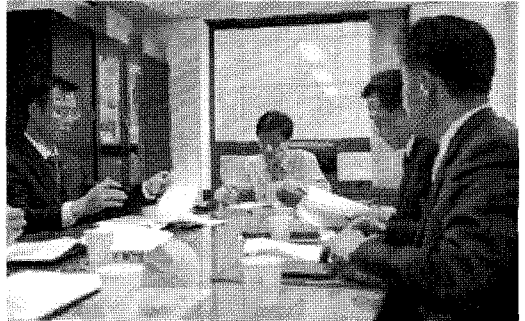
자문관들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에 해운, 항만, 수산 분야의 기본계획과 법령마련에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고, 법령초안 제시, 현장 시찰, 정책방향 논의 등 다방면의 자문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자문기간 중 양국정부 간 해운·항만·국제물류 분야에 대한 MOU체결, 한국선급과 몽골정부 간 MOU체결, 해양부분의 몽골 장학생 선발 등 구체적 결실을 거두었다.

한국해운조합

2011년도 신년 업무보고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지난 5일부터 7일 사흘에 걸쳐 부서별 신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부서장 및 각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 핵심추진과제 및 신규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는 등 2011년 업무로드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부서간 업무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은 연초 업무계획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분기별 본·지부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이 창립 3주년을 맞았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월 21일 창립 3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고 글로벌 공공기관으로 성장을 다짐했다.

이날 이용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 해양환경 보호 중요성 △ 깨끗한 해양 환경조성 △ 해양환경분야 신규사업 확대 △ 국제적 상호 협력 체제 강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등 임직원의 2010년도 업적을 치하했다.

특히, 이용우 이사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을 하나씩 이뤘 나가 풍요로운 녹색미래 실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해항회

2011년 신년교례회 개최

‘2011년 해항회 신년교례회’가 1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해항회 회원들 간의 친목을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해항회의 새로운 부회장으로 이갑숙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박정천 케이엘넷 사장, 정만화 전 항만국장이 선임됐다.

이날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은 신묘년 새해를 축하하며 “지난해 여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20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및 해운·항만·해양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희국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선대 규모는 세계 5위이며, 지난해 항만물동량은 1,900만 TEU를 달성했고, IMO A그룹 이사국에 5번 연속 진출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금년도 정부의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의 양대 기둥아래 해운성장의 엔진을 다변화하고, 항만의 국제물류거점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세계 5대 해운항만의 위치에서 더욱 분주하게 노력하고 도약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G20의 성공적 개최 등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면도 있지만 현재 구제역 문제 등 방제관리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해항회 회장인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신년교례회를 통해 보고싶었던 선배, 후배, 동료 등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제3세대의 젊은 디딤돌로서 앞으로의 해항회 활동의 참신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 여수세계박람회 강동석 조직위원장, 국토해양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 광인섭 항만물류실장, 케이엘넷 박정천 사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차관, 최장현 전 국토해양부 차관 등을 비롯한 230여명의 해항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항회는 해양관련 부처의 퇴직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해 지난 1984년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25명의 가입으로 총 인원수 816명이다. 해항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 및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회원복지를 위해 부산, 인천,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